

생산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실용화 중심 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

KITECH

중소·벤처기업에게 장비, 인력, 기술력 등 일체의 기술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. 올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.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벤처기업의 곁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소개한다.



한국생산기술연구원 (<http://www.kitech.re.kr>)

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연구 분야, 정부 및 국제 연구사업, 다양한 중소·벤처기업 지원제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. 특히 온라인 상담실 '무엇이든 물어보세요' 운영을 통해 중소·벤처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.

한

국생산기술연구원(이하 생기원)은 실용화 중심 생 산기술을 개발, 중소·벤처기업에 지원할 목적으 로 지난 1989년 설립됐다. 실용화 연구 개발, 중 소·벤처기업 생산현장 기술 지원, 국가전략적 기 술개발 사업 기획·관리의 3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연구기관 이다.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‘차세대 생산시스템’ 분야, ‘생 산기반기술’ 분야, ‘첨단 부품소재기술’ 분야의 3대 핵심 분야에 R&D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. 특히 전통기술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퓨 전 R&D의 비중을 높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 고, 이를 중소·벤처기업에 이전하는 데 많은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.

생기원은 연구개발이 열악한 중소·벤처기업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,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역에 연구센터를 설치하 고 운영 중이다. 설립 후 지금까지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 술 개발에서부터 범국가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이르기까 지, 3천여 건에 이르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이중 71%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다. 3년 연속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, 매년 30% 이상의 기관 성장률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,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인 성장에 주력할 방침이다.

지 역 클 러 스 터 구 축

생기원은 현재 천안을 본원으로 인천, 안산 등 전국 11개 지역에 4개 의 R&D 중심 연구센터, 그리고 사회, 동대문, 부천 등 7개의 기술지 원 중심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. 이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R&D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 산업단지의 중소·벤처기업들에게 보 다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클러스터 구 축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.

이전까지 생기원은 본원의 천안연구센터 아래 3개 연구본부, 인천연 구센터 아래 3개 연구본부를 두고 R&D를 수행해 오다 지난 5월 대대 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천안과 인천의 연구센터 외에 안산, 광주, 부산 의 기존 지역본부들을 연구센터로 승격시켰다. 그리고 이들 연구센터 에 자율책임경영방식을 부여함으로써 본원으로부터의 지원을 줄이 는 대신 해당 지역 기업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. 이러한 연구센터의 분

권화와 맞물려 생기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에 한층 큰 힘을 실기 위해 ‘지역혁신클러스터추진단’을 설치, 가동하고 있다.

또한 세계적인 연구그룹 배출을 위해 ‘COE(Center of Excellence, 우수 연구집단)’를 선정,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 COE 지원 대상은 ▲연구인력과 연구성과의 세계 최고수준 달성 가능성 ▲정보 집적지로서의 탁월성 여부 ▲국제화 수준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. COE로 선정된 연구팀에는 예산, 인사 등 연구팀 운영에 관한을 부여하고, 해외 우수 연구기관들과 협력·경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.

창 업 보 육 원 스톱 지 원

한편 생기원은 자생력이 미약한 중소·벤처기업을 입주시켜 창업 초 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천안과 사회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. 생기원 창업보 육센터의 최대 강점은 풍부한 R&D 인력을 활용한 공동 기술개발, 시 제품 제작,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‘원스톱(One-stop) 지원체제’를 갖 추고 있다는 것이다.

우선 입주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분야에 적합한 연구책임자 를 멘토로 지정하는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. 멘토링시스템으 로 생산현장 기술은 물론 경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연 구원이 창업초기의 난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.

또 입주기업의 ‘기술개발 → 상품화 → 자립’ 단계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. 창업초기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은 제품 에 대한 기술력은 있으나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및 홍보의 어려 움을 호소하기 십상이다. 생기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기업 실정에 맞 춰 단계별로 해소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지난 5 월에는 마케팅 전문기업과 MOU를 체결, 매주 수요일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. 한편 입주기업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케팅을 비롯하여 매주 한 차례씩 세무·회계, 특허, 법무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실무교육도 실시한다. 올해에는 입주기업을 56개사로 늘리고, Pilot Plant 설비 확충과 공 용실험실 활용 극대화에 공을 들임으로써 입주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.



천안창업보육센터 김준하 센터장

창업보육센터는 올해 ▲Pilot Plant를 이용한 생산지원 ▲1인 1사 연구책임자 선정 밀착책임지원 ▲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공동수행 ▲전문컨설팅 기업들과의 연계 활성화로 전방위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만의 특화된 생산지원형 창업보육서비 스를 지원할 것입니다. (문의 041-589-8064 / 031-496-6880)